

제6차 ASEM 정상회의 개최식 연설

존경하는 의장,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제6차 ASEM 정상회의의 개막을 축하하며, 핀란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헬싱키 선언을 통해 냉전시대 극복의 기초를 다졌던 역사적인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ASEM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ASEM은 유럽과 아시아의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 회의를 통해 유럽이 이뤄낸 통합과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험은 아시아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안보질서를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지역은 경제에 있어서도 긴밀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큰 시장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아시아와 성숙한 경제의 유럽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두 지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ASEM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2000년에는 제3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여러 사업을 통해 두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정보 실크로드', 장학사업을 통한 '교육 실크로드', 그리고 남북한 철도를 시발로 유럽까지 이어가는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또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EU는 우리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지난해 EU와의 교역액은 527억 유로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유럽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ASEM은 이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협력의 수준을 높여 가야 합니다. '대화의 장'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협력의 매개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도 그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국가 간, 계층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ASEM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조와 같은 직접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정보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통해 시대 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정보·교육 격차 해소를 비롯한 ASEM 차원의 양극화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ASEM의 새로운 10년을 열어 가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